Ⅴ. 결론

일반적으로 손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표현되며 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축소하거나, 수입의 증가분이 지출 증가분을 초과한다면 손익이 개선되고 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손익도 이러한 경로를 거쳐 산출되지만 보험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지율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의 개발과 유동성위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출 측면에서도 과학적인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기법 도입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비 감소를 위해 CM, DM, TM 등 저사업비 판매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손익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손익분석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가격결정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이익이 확보되도록 하고, 판매중에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변수들의 손익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상품의 활성화 또는 판매 축소 등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의 손익분석에서 기초율 등 독립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손익의 절대적 크기가 상이할 수 있지만, 독립변수 사이의 상대적인 민감도 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배당보험보다는 무배당보험의 민감도가 크고 투자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는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이 높으며, 위험률에 대한 민감도는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에서 높게

나타난다. 사업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보험료 수준이 낮은 종신보험이 월등히 높으며, 해약률 변화에 따른 손익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손익중심의 상품운용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저축성상품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중장기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무배당보험은 사후적인 가격인 배당률에 의해 손익이 변동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무배당보험이 유리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의 보험지식이 증대하게 되면 유·무배당보험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개별 회사 측면에서는 자산운용에 강점이 있으면 저축성보험을, 언더라이팅에 강점이 있으면 보장성보험을, 저사업비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면 사업비가 낮은 상품의 판매에 전략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손익에 근간한 가격결정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험계리인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보험사업 특유의 수리적 계산 즉, 책임준비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이나 보험료 계산은 전문적인 지식과 복잡한 계산기법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업무는 보험경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격자유화시대에는 회사의 책임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장래의 시장금리, 자산운용수익률 등 금융환경을 적절하게 예측하여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평가에 회사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선진외국의 경험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실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단순한 가정을 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개별회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서는 어떤 유형의 상품이 일정한 환경하에서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요·공급에 따른 손익 접근 및 월납 형태의 분석을 하지 못한 미흡함은 있으나, 작성 목적 자체가 상대적인 손익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보고서 내용이 주

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실적 적합성, 미래에 대한 정밀한 가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 회사별 내재가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보험환경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효율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자유화, 개방화 및 금융권간 고유영역의 축소 등 치열한 환경변화는 선진기법 도입, 과학적인 경영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사업의 기본인 손익관리는 필수적이다. 합리적인 손익관리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게 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사에서는 가격자유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생존전략 차원에서 내실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손익관리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